



2025년 3월 2일(제1236호) 연중 제8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세상에서 가장 큰 죄”

평소 굉장히 열심히, 선한 형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게 기억납니다. 잘 익은 포도알이 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잘 익은 포도알을 꺾 누르면 과즙이 새어 나오듯, 당신도 내면에 하느님의 사랑이 가득 차 꺾 누르면 사랑만이 나오는 포도알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한다고 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공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는다고 하십니다. 잘 익은 포도알처럼, 선한 사람은 꺾 누르면 사랑과 자비가 터져 나옵니다. 선했던 그 형제님뿐만 아니라,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선하신 하느님을 마음에 담아, 꺾 누르면 선한 것을 내놓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마음먹은 대로 살아가지가 않습니다. 간혹 누군가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그 사람 눈에 있는 티와 들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내 짜증과 화가 치밀니다. 속으로 말합니다. ‘너 왜 그렇게 사니?’ 친한 친구들을 찾아가, 내가 겪은 화를 토로하며 은근히 이웃을 깎아 내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에게, 오늘 복음 말씀은 한가지 깨달음을 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세상에서 가장 큰 들보는 무엇인지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하느님 없는 마음, 사랑과 자비가 없는 마음일 겁니다. 타인의 눈에 있는 티를 바라보며 ‘너 왜 그래?’ 짜증을 내며 판단하고 비난하는 순간, 내 눈에 세상에서 가장 큰 들보가 들어차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합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티를 바라보며 가장 큰 죄를 짓는 죄인이 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선한 것을 내놓은 선한 마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도 주님께 늘 기도해야 합니다. 선하신 분은 하느님 한 분뿐이시기에,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을 채워 주시는 분은 하느님 한 분뿐이십니다.

타인의 티를 보는 가장 큰 죄는 치워주시고, 하느님이 지니셨던 그 마음을 채워달라고 주님께 도우심을 청함시다. 꺾 누르면 팡하고 과즙이 터져 나오는 잘 익은 포도알처럼, 우리도 누르면 좋은 것이 터져 나오는 주님 닮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오직 그것만을 바라며 기도하는 한주가 됩시다.



장준교(로마노) 신부
예성대(공군 제16진투비행단) 상당 주임

- 제 1 독 시 집회 27,4-7
- 회 답 송 ◎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 제 2 독 시 1코린 15,54-58
- 복음 원호송 ◎ 알렐루야.
-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도록 너희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녀라. ◎
- 복 음 루카 6,39-45
- 영 성 제 송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노래하리이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 이름 찬양하리이다.

동정부부 순교지 복지 이순이 루갈디 옥중편지

2. 이순이(李順伊) 루갈다가

친언니와 올케에게 보낸 편지

이 아우는 죄악이 너무 무거워 엄청난 시련을 당하니, 편지로 풀어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으나, 사 년 동안의 이별의 회포와 쌓인 이야기를 잠깐 기록하여 알리고 이 세상과 이별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 들어 애간장을 녹이다가 결국 어찌할 수 없어 시아버님(유항검, 아우구스티노)을 여의게 되니 저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기회를 보아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리라 결심하고, 큰일(치명)을 도모하여 있는 힘을 다하였으나, 어찌 될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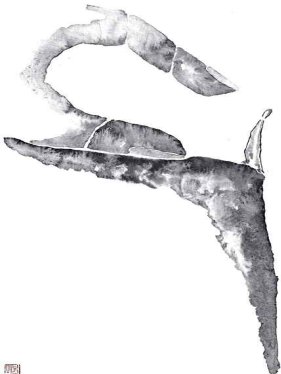
큰일(치명)을 할 기회가 없을까 염려하던 차, 관청에서 많은 포졸들이 나와 이 몸이 붙잡히니, 오히려 제 뜻과 같이 되어, 참으로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계속>

『동정부부 순교지 복지 이순이 루갈디 옥중편지』 발췌, 진주교구 지명지신성지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그만 거기까지



그만! 거기까지.
더는 안된다.

하여, 당당하게.
선언해야 한다.

더는 내줄 수 없다.
사실, 갈 곳도 없다.

"그만! 거기까지."라고.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상화이야기

비오로 사도의 회개



윌리엄 블레이크(William Blake, 1757-1827), 1800년경 作
종이에 수채화, 42x37cm / 힝탕틴 도시관 미술 컬렉션, 미국

윌리엄 블레이크의 성경을 주제로 한 수채화 시리즈 중 하나로, 토마스 버츠(Thomas Butts)라는 후원자를 위해 제작하였다. 이 시리즈에는 신약성서에 나오는 하느님(신)의 성스러운 관여와 정신적인 계몽 및 제자로 부르심 받을 때의 인간적인 반응 등의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는 작품들이 다수 등장한다. 어떤 이들은 기꺼이 성스러운 부르심에 응답하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성소에 각기 다르게 대응하기도 한다.

본 작품에서 바오로 사도는,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앉은(아마도 갑작스럽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빛과 존재에 대해 놀람과 순응을 상징하는 듯) 말 위에서 두 팔을 활짝 벌리고 놀란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 이 자세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연상시키기도 하지만, 두 팔을 벌려 부르심에 응답하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눈부시게 빛나는, 압도하는 성스러운 빛에 둘러싸여 공중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다마스쿠스 쪽으로 팔을 뻗어 가리키고 계시고, 예수님의 옷이 사울에게 거의 스쳐 닿을 듯이 그려져 있다. 이는 하느님의 신성이 성소에 어떻게 개입하고 작용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되기도 한다. 학자들은 블레이크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또 어떻게 그 시각을 바꾸느냐에 따라, 하느님의 부르심과 개입이 작용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또한 빛에 둘러싸인 사도 바오로와 달리 어둡게 그려진 주변 인물(군인들로 보인다)들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이들은 어떤 이는 놀라움에, 어떤 이는 얼굴을 부여잡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듯이 보인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8주일: 국방부 유한석 신부

◆ 교구장 동정

- 성요셉(1군단) 성당 사목방문
때: 3월 2일(주일)
- 2025년 군종장교 입영 전 오리엔테이션
때·곳: 3월 6일(목)~7일(금),
안양 성라자로 마을 아론의 집

◆ '군중의 시간' 안내

- 때: 주일 오후 3시 ~ 4시
-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 군종교구 홈페이지와 평화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 많은 청취 바랍니다.

"신앙 회복과 성장을 위한 건진성사의 해" -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나의 종인이 될 것이다." (사도 1:8)